

2017년 5월 20일, 구좌읍 동복리 동복리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정정심(여, 1938년생, 구좌읍 동복리)

제보자2: 양고출(여, 1930년생, 구좌읍 동복리)

• 줄거리: 구좌읍 동복리의 해녀식당 근처에 작은 동백나무가 있는데 그곳이 도깨비의 발원지라고 한다. 동복리의 비석거리의 팽나무에도 큰 담뱃대를 문 도깨비가 나왔다 고 전해지며, 도깨비불로 나타나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한다. 한 하르방은 도깨비와 싸움을 하다가 도깨비의 신체를 한웅큼 쥐어 뜯었는데, 순간 도깨비는 불이 되어 날아가 버렸다. 집에 와 자신이 손에 들어 있는 것을 보니 닭털이었다고 한다.

[제보자1] 옛날은게, 옛날은 제삿밥 앗앙 가다그네에이? 도체비 봐그네에이 막 허는 사람도 잇곡 헌디, 이 전깃불 놔부난, 이젠 도체비도 안 나.

[조사자] 그믄 제삿밥 아정 가당, 어떻 도체비가 나완마씨?

[제보자1] 도체비가 불 싸고 어떤 땐 으 비석거리엔 헌디, 요기, 여기 폭낭 잇인디 옛날은 그디가 높아낫주게. 견디 그디 담벳통 물언이, 앗앙이 헌 거 봐그네 막 놀래는 사람도 잇곡 헤낫어. 담벳곽 큰 담벳통 물언이.

[제보자2] 그디 우리 시어멍네 집이라.

[조사자] 큰 담뱃대?

[제보자2] 어, 도체비가.

[제보자1] 하르방이 나왕.

[제보자2] 도체비라 그러민 장 걸이레 가젠 허민 막 무서왕야, 막 헤낫고렌 골으메 우리 시어멍.

[제보자1] 옛날은이 가로등 안 세운 땐, 그 도깨비가 나그네에 막 놀이엔 허는 헹 사람 잇언디. 이제는 가로등을 막 세와부난 엇어.

[조사자] 그믄 도체비는 깜깜헐 때 나오는 거구나.

[제보자1] 어, 새벽이 나는 도체비가 잇고이. 막 저 코지 끝에 강 앗이민. 또 이 저 장산에 하르방 소낭 끝에 강 앗곡이. 이, 이렇게이 그 불이 저 갯겼딜로이 이레 영막 날아오주게. 우이로 내려와. 누려다그네 앗는 디 강 앗아. 그 장산 그 디서 앗앙 찌르륵 헤여그네 소여답 우이 강 앗아낫젠…….

[조사자] 어디 탑 위?

[제보자2] 으. 소여답.

[조사자] 소여답?

[제보자1] 여기 쪄 섬이 잇주. 쪽글락헌 거.

[조사자] 소여.

[제보자1] 응. 소여.

[조사자] 거기 탑 우에도 불이 호르륵 날아가?

[제보자2] 날아뎅겨. 동쪽서 날아왕 거기 왕 앗넨.

[제보자1] 이제 저 해녀 쪄 식당헤연 저기 장소하는 디. 그디 둠백낭 알에. 도체비가 거기 낫단.

[제보자2] 쪽꼬만 헌 둠백 이제도 잇어. 게난 걸로 아래 내려와그네에 아래도 왕 갓곡 그 렇게 헤낫어.

[조사자] 막 돌아다녀. 그믄은 발원지가 해녀식당에 잇는 둠백낭이구나?

[제보자1] 응. 그디 둠백낭 잇어. 소엣답 우이가. 크지도 안 혀. 딱 돌에 부띤. 돌에게 이 만 헤그네에 크지도 안 혀.

[제보자2] 옛날 그 ○○○ 아방 어디 김녕 강, 막 뚱뚱헌 할아버지 잇주게, 할아버진다. 이제 김녕 강 오다가 그 하르방이 나왕, “요노무 새끼!”하멍 막 쌍단. 이 하르방이 이만이 헌 하르방이주게. 경 허난 이제 하르방이영 막 쌍단. 그 불이 확허게 돌아나비엇젠 허주기.

[조사자] 그믄 둘이 씨름헌 거라?

[제보자1] 응. 도깨비허고.

[제보자2] 겐이 너 이 자식 헤보렌이. 확 헹 막 쌍단.

[제보자1] 앗앙 완 집이 완 보난 득털.

[조사자] 득털? 득새기 털?

[제보자1] 응. 경 그 하르방이 신체가 이마이 헤나고.

[조사자] 그 하르방 이름이 뭣과?

[제보자1] 그 하르방 무시것고?

[제보자2] ○○○ 아방.

[조사자] ○○○ 아방이엔 골아마씨?

[제보자2] 응. 거 하르방이 등치도 크곡이 저 김녕 강 오다그네에 그, 저, 커피숍 잇인 딜로 우트레 올라가비엇Zen 헌덴, 도깨비가.

- 핵심어 : 담뱃통, 도체비, 불, 소여답, 둠백낭, 씨름, 득털, 동백나무, 동복리, 도깨비